<h1>나 혼자만 레벨업-89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zef96cf6d24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89화</p>  
<p>끼익.</p>  
<p>도로 옆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다.</p>  
<p>선글라스와 블랙슈트.</p>  
<p>운전석에서 내려선 남자는 헌터협회 감시과 과장 우진철이었다.</p>  
<p>이어 조수석과 뒷자리에서도 세 명의 남자가 나왔다.</p>  
<p>모두 감시과의 헌터들이었다.</p>  
<p>"과장님, 저희 협회로 가던 길 아니었습니까?"</p>  
<p>"여기 볼일이 좀 있어서."</p>  
<p>우진철은 고개를 돌려 먼발치에 있는 게이트를 바라보았다.</p>  
<p>'A급 게이트는 언제 봐도 무시무시하군.'</p>  
<p>우진철은 눈살을 찌푸렸다.</p>  
<p>만약 저 거대한 구멍의 문이 열리고 마수들이 한꺼번에 뛰쳐나온다면...</p>  
<p>상상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일이었다.</p>  
<p>'그런데 그 남자는 왜 이런 끔찍한 곳에 광부로 지원한 걸까?'</p>  
<p>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이틀씩이나.</p>  
<p>고건희 협회장님의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었더라도 한 번쯤 알아보고 싶었던 일이었다.</p>  
<p>'뒷조사는... 불가능하다.'</p>  
<p>상대는 S급의 각성자다.</p>  
<p>A급에 불과한 자신이 들키지 않고 S급을 몰래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.</p>  
<p>그래서 그냥 당당하게 찾아왔다.</p>  
<p>마침 근처에 일이 있기도 해서 지나던 길에 들렀다고 인사하고, 몇 가지 간단히 물어볼 생각이었다.</p>  
<p>'설마 물어보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겠지?'</p>  
<p>이미 S급 판정이 확정된 헌터가 던전에서 땅이나 파고 있다면 누구라도 사정이 궁금할 거다.</p>  
<p>게다가 성진우는 현태 헌터협회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존재 아닌가?</p>  
<p>특히 협회장님께서는 그가 마음에 드셨는지 그의 동향 하나하나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.</p>  
<p>'이상한 건 내가 아니야.'</p>  
<p>궁금한 게 당연한 거고, 물어보는 게 정상인 거다.</p>  
<p>우진철은 그렇게 되뇌며 헌터스 길드의 관계자를 찾았다.</p>  
<p>"채굴팀을 찾고 있습니다."</p>  
<p>"누구... 시죠?"</p>  
<p>"협회에서 나왔습니다."</p>  
<p>우진철의 신분을 확인한 길드 직원은 채굴팀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를 손가락 끝으로 가리켰다.</p>  
<p>"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."</p>  
<p>"감사합니다."</p>  
<p>네 명의 감시과 헌터들이 채굴팀을 방문했다.</p>  
<p>미리 연락을 받았는지 팀장 배윤석이 헐레벌떡 뛰어나왔다.</p>  
<p>"아이고, 협회 감시과 헌터 분들이 여긴 어쩐 일로 다 오셨습니까?"</p>  
<p>편히 쉬고 있던 채굴팀 헌터들의 얼굴에 긴장한 낯빛이 스치고 지나갔다.</p>  
<p>헌터들에게 '감시과'란 단어가 주는 압박감은 컸다.</p>  
<p>공권력이 감당할 수 없는 각성자들을 잡아들이고, 교화시키고, 때로는 제거하기도 하는 존재들.</p>  
<p>그런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'감시과'였다.</p>  
<p>"무슨 일이래?"</p>  
<p>"감시과 헌터들이 왔대."</p>  
<p>"감시과가 여길?"</p>  
<p>무슨 일이 터지겠구나.</p>  
<p>채굴팀 헌터들이 호기심을 보이며 하나둘 배 팀장 곁으로 모여들었다.</p>  
<p>우진철은 선글라스를 벗었다.</p>  
<p>'...'</p>  
<p>성진우가 있는지 훑어보던 우진철이 결국 배 팀장에게 그의 행방을 물었다.</p>  
<p>"성진우 헌터님은 어디에 계십니까?"</p>  
<p>"내 그럴 줄 알았지!"</p>  
<p>갑자기 헌터들 사이에서 한 명이 뛰어나왔다.</p>  
<p>어제 던전에서 성진우와 어깨를 부딪쳤던 이성구였다.</p>  
<p>이성구가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했다.</p>  
<p>"그 새끼가 나를 돌아보면서 씩 웃는데 아주 사람을 잡아먹을 눈빛이었다니까! 어휴, 어찌나 간이 떨리던지 지금 생각해도 진짜."</p>  
<p>우진철의 미간이 살짝 구겨졌다.</p>  
<p>'사람을 잡아먹을 눈빛?'</p>  
<p>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</p>  
<p>웅성웅성.</p>  
<p>헌터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.</p>  
<p>우진철은 소음을 무시하고서 이성구에게 물었다.</p>  
<p>"무슨 일이 있었습니까?"</p>  
<p>"아, 그게..."</p>  
<p>이성구는 대답을 하려다가 자기가 잘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고는 손을 내저었다.</p>  
<p>"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, 그 사람 눈이 되게 무섭더라고요."</p>  
<p>"..."</p>  
<p>우진철의 시선이 다시 배 팀장에게로 향했다.</p>  
<p>"성진우 헌터님은 어디 계시죠?"</p>  
<p>"성 씨는... 지금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는데요."</p>  
<p>성진우가 레이드 진행 중인 A급 게이트 안으로?</p>  
<p>우진철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"성진우 헌터님이 왜 던전에?"</p>  
<p>"오늘 짐꾼이 안 나왔거든요. 던전에 대신 들어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지원한 성 씨가 짐꾼으로 들어갔습니다."</p>  
<p>"..."</p>  
<p>"근데 참 요상하네요."</p>  
<p>"무슨 말씀이시죠?"</p>  
<p>"아니요. 별건 아닌데... 방금 차 헌터님, 아니 차해인 헌터님도 성 씨를 찾더니 게이트 안으로 따라 들어갔거든요? 참 요상하다 싶어서..."</p>  
<p>배 팀장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대답을 듣고 있던 우진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.</p>  
<p>'헌터스의 부사장인 차해인이 성진우를 찾는다? 그것도 모자라서 그를 따라 던전에까지 들어가?'</p>  
<p>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.</p>  
<p>성진우에게 안부를 물으러 온 것 뿐인데, 뭔가 일이 커져 가는 느낌이었다.</p>  
<p>'일단 게이트로 가 보자.'</p>  
<p>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 정도가 최선인 듯했다.</p>  
<p>"잠깐 게이트 좀 둘러보고 가겠습니다."</p>  
<p>"예, 그러세요."</p>  
<p>배 팀장이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우진철이 부하 직원들과 함께 돌아서려는데 이성구가 급하게 붙잡았다.</p>  
<p>"저기 헌터님!"</p>  
<p>이성구는 무언가 잔뜩 기대하는 얼굴로 물었다.</p>  
<p>"그놈, 성진우라는 놈이 사고라도 쳤습니까? 혹시 사람 죽인 거 아닙니까? 그러고도 남을 놈처럼 보이긴 하던데."</p>  
<p>우진철은 눈살을 찌푸렸다.</p>  
<p>문득 성진우가 이 남자에게 무서운 눈빛을 보냈던 이유가 이해될 것 같았다.</p>  
<p>'성진우가 콧방귀만 껴도 날아갈 것 같은 놈이...'</p>  
<p>그래도 여긴 보는 눈이 많았다.</p>  
<p>협회 소속의 헌터로서 함부로 타인에게 짜증을 내거나 할 수는 없었다.</p>  
<p>이래서 공인은 귀찮다.</p>  
<p>한숨을 푹 내쉰 우진철은 최대한 점잖게 대답했다.</p>  
<p>"내일 저녁 뉴스를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."</p>  
<p>어느 정도 원하던 대답이 됐는지, 이성구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.</p>  
<p>"거 봐, 내가 그랬지? 그 인간 수상하다고."</p>  
<p>"그렇게는 안 보이던데..."</p>  
<p>"그러게. 일도 싹싹하게 잘하고."</p>  
<p>이성구는 동료들의 미적지근한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안목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늘어놓았다.</p>  
<p>'쯧.'</p>  
<p>그런 그를 한심하게 쳐다보던 우진철은 부하들을 데리고 게이트 쪽으로 이동했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멈칫.</p>  
<p>게이트를 몇 발짝 앞둔 위치에서 우진철은 본능적으로 발을 멈추었다.</p>  
<p>"과장님?"</p>  
<p>부하들은 갑자기 얼굴이 굳어 버린 우진철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.</p>  
<p>'이럴 수가... 이건 말도 안 돼.'</p>  
<p>우진철은 폰을 꺼냈다.</p>  
<p>그리고 협회 정보실에 들어가 오늘 헌터스가 공략하기로 되어 있는 A급 게이트의 정보를 열람했다.</p>  
<p>우진철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'왜 이렇게 마력값이 낮은 거지?'</p>  
<p>저절로 고개가 가로저어졌다.</p>  
<p>'측정 결과가 잘못됐어.'</p>  
<p>A급 헌터라도 다 같은 A급이 아니다.</p>  
<p>우진철은 A급 중에서도 가장 위쪽에 위치한 헌터였다.</p>  
<p>그런 감각이 말해 주고 있었다.</p>  
<p>마력 측정값이 틀렸다고.</p>  
<p>우진철은 옆의 부하에게 재빨리 지시를 내렸다.</p>  
<p>"마력 측정기."</p>  
<p>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부하 직원이 빠르게 차가 주차된 곳으로 달려갔다 왔다.</p>  
<p>감시과에서 쓰는 소형 마력측정기는 일반적인 협회 직원들이 쓰는 측정기와 궤를 달리하는 물건.</p>  
<p>10억을 호가하는 최고급 마정석을 이용해 만든 측정기답게 오류나 오차는 거의 발견하지 않는다.</p>  
<p>빽.</p>  
<p>결과가 나왔다.</p>  
<p>'역시...'</p>  
<p>협회 측정 결과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.</p>  
<p>만약 협회의 발표를 믿고 공격대를 꾸렸다면 큰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.</p>  
<p>'안에 S급이 둘이나 들어갔다니 별일은 없겠지만...'</p>  
<p>우진철이 땅에 놓은 측정기를 들고 일어서려는 그때.</p>  
<p>우웅-</p>  
<p>게이트가 진동했다.</p>  
<p>갑자기 터져 나온 강력한 마력 파장에 우진철은 물론 그보다 감각이 떨어지는 부하 세 사람조차도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.</p>  
<p>"과, 과장님?"</p>  
<p>"이게 대체?"</p>  
<p>우진철은 안색이 창백하게 변한 막내를 바라보았다.</p>  
<p>"괜찮나?"</p>  
<p>"괘, 괜찮습니다."</p>  
<p>막내는 대답 후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았다.</p>  
<p>좁쌀 같은 소름이 돋아 있었다.</p>  
<p>우진철이 몸을 일으켰다.</p>  
<p>"안으로 들어간다."</p>  
<p>"예?"</p>  
<p>"저길 들어간단 말씀이십니까?"</p>  
<p>우진철은 단호했다.</p>  
<p>"무서운 사람은 빠져도 좋다."</p>  
<p>측정 결과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자신뿐.</p>  
<p>어떻게든 안에 있는 헌터들에게 알려야 했다.</p>  
<p>헌터들을 관리하고, 감시하며, 헌터들의 일을 돕는 것. 그게 협회 소속 헌터들의 임무였다.</p>  
<p>"아, 아닙니다."</p>  
<p>"같이 가시죠."</p>  
<p>우진철은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"막내, 넌 여기 남아서 측정 결과를 협회에 보고해라."</p>  
<p>"네, 네?"</p>  
<p>"할 수 있겠지?"</p>  
<p>우진철이 어깨를 툭 치자 얼어 있던 막내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"네, 알겠습니다."</p>  
<p>우진철은 고개를 돌렸다.</p>  
<p>게이트가 보였다.</p>  
<p>지나치게 높은 자체 마력량에도 불구하고 방금 또다시 거대한 마력 해일이 게이트 바깥까지 밀려 나왔다.</p>  
<p>'대체 안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?'</p>  
<p>우진철을 시작으로, 감시과 헌터 두 사람은 게이트 안으로 동시에 몸을 던졌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그 시각.</p>  
<p>차해인은 던전 안에서 공격대의 흔적을 쫓아가고 있었다.</p>  
<p>'이상하네. 왜 마수들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걸까.'</p>  
<p>평범한 던전이라면 입구 근처에서부터 보스방까지 여기저기 마수들의 사체가 있어야 한다.</p>  
<p>마수들이 어디 한곳에 모여 있기라도 한 걸까?</p>  
<p>그런 생각을 하며 걸음을 옮기는 와중에.</p>  
<p>'어?'</p>  
<p>드디어 사체를 발견했다.</p>  
<p>탓, 탓, 탓.</p>  
<p>S급의 전투 계열 헌터답게 차해인은 눈 깜짝할 사이 전투가 벌어졌던 곳에 도착했다.</p>  
<p>'이럴 수가!'</p>  
<p>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변했다.</p>  
<p>사체들은 전부 하이오크들.</p>  
<p>평범한 오크들과 다르게 붉은 피부와 긴 어금니를 가진 놈들이라 쉽게 분간이 가능했다.</p>  
<p>'어떻게 손기훈 씨 팀이 이 정도 숫자의 하이오크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었던 거지?'</p>  
<p>어디 그뿐인가?</p>  
<p>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었다.</p>  
<p>물론 피해자가 나왔다면 이렇게 번거롭게 찾아갈 필요도 없이 알아서 공격대 쪽이 후퇴를 했겠지만.</p>  
<p>'내가 A, B급 헌터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나?'</p>  
<p>어쩌면 그럴지도.</p>  
<p>현장을 둘러보니 전투는 아주 일방적이었던 것 같았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'이건...?'</p>  
<p>무언가를 발견한 차해인이 자세를 낮추고 사체를 살폈다.</p>  
<p>그녀의 눈이 더욱 커졌다.</p>  
<p>몸을 일으킨 그녀가 다른 사체들을 빠르게 하나씩 살피기 시작했다.</p>  
<p>'여기도... 또 여기도...'</p>  
<p>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 갔다.</p>  
<p>'어떻게...?'</p>  
<p>이런 일이.</p>  
<p>거의 모든 하이오크들의 사체에 짧고 날카로운 무기로 공격당한 것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.</p>  
<p>'숨통을 끊을 만큼 치명적인 공격은 아니지만...'</p>  
<p>하이오크들의 행동을 억제할 만큼의 위력은 충분히 느껴졌다.</p>  
<p>결국 다른 헌터들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.</p>  
<p>한 사람의 헌터가 20마리의 하이오크들을 대량 학살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.</p>  
<p>그중 두 마리의 하이오크만이 다른 형태로 죽어 있었다.</p>  
<p>하나는 목이 강한 힘에 뜯겨 나갔고, 하나는 머리에 둔기를 맞고 죽었다.</p>  
<p>'그럼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오크들은 누군가가 혼자서 다 빈사상태로 만들었다?'</p>  
<p>이게 가능한 일일까?</p>  
<p>속도에 자신 있는 그녀도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일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다.</p>  
<p>그리고 그녀가 알고 있는 한, 손기훈 팀에 단검이나 단도를 쓰는 암살자형 헌터는 없었다.</p>  
<p>'단검?'</p>  
<p>그때 어떤 광경이 머릿속을 팟 스쳐 지나갔다.</p>  
<p>어제 보스방 앞에 서 있었던 남자.</p>  
<p>성진우는 분명 양손에 무언가 짧은 무기를 쥐고 있었다.</p>  
<p>'설마 그 남자가?'</p>  
<p>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, 차해인의 고개가 던전 안쪽으로 휙 돌아갔다.</p>  
<p>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.</p>  
<p>던전 저 깊숙한 곳에서 여태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강한 마력 파장이, 아니 마력 진동이 일어나고 있었다.</p>  
<p>공기가 떨렸다.</p>  
<p>'안 돼!'</p>  
<p>차해인이 아랫입술을 깨물었다.</p>  
<p>이것이 만일 보스급 마수의 마력이라면 손기훈 팀은 결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.</p>  
<p>그녀는 보스방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다.</p>  
<p>=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